

『鍼灸極秘抄』 研究

박상영, 오준호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鍼灸極秘抄(Chimgu-kukbicho)』

Park Sangyoung, Oh Junh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m Deok-bang(金德邦)'s 『Chimgu-kukbicho(鍼灸極秘抄)』(Secret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sn't been known throughout Korea yet, let alone its existence. Kim Deok-bang was the person who was taken to Japan as a prison during the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he is known to have initiated Japan's noted doctor Nagada Tokuhon(長田德本), who is comparable to Huh Jun in Korea, into the acupunctural method. Nagada Tokuhon healed many patients with the unusual blood-drawing method, which was one of the very unfamiliar scenes in Japan at that time. 『Chimgu-kukbicho』 shows that the very blood-drawing method was used for not a few medical treatments. This aspect can be said to be an unprecedented point of the acupunctural method in the first half of the Choseon Dynasty period as shown in 『Chijong-jinam(治腫指南)』 in our country, and from such a context, it is understood that the medical skills were widely distributed in Japan by Kim Deok-bang. This paper is going to lay a foundation for the argument hereafter related to this by including Provision 114 stating Kim, Deok-bang's acupunctural method like this.

Key Words : Kim deok-bang(金德邦), Acupunctural Method, Blood-Drawing Method, 『Chimgu-kukbicho(鍼灸極秘抄)』, Nagada Tokuhon(長田德本), 『Chijong-jinam(治腫指南)』

I. 서론

壬辰倭亂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가 재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문물, 문화, 인력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학계에서조차 우리나라 名醫가 일본으로 건너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정황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金德邦이라는 인물은 일본 자료에

經東, 金德, 金德邦, 金德許, 金德許德原, 金得拜, 金得許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지는 인물로, 이 인물의 일본 내 계보 자체가 하나의 논문으로 묶여질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¹⁾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龜巖 許浚과 비견되는 일본의 전설적인 名醫 知足齋 長田德本(永田德本이라고도 한다)²⁾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金德邦의 의술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하는 『鍼灸極秘抄』³⁾에 대해 소개하고 그 주요 부분에 대한

1) 대표적으로 다음 논고들을 들 수 있다. 宋岡尙則·山下幸一·村崎徹, 「文祿の役(壬辰の亂)における日本, 朝鮮, 明醫學の交わり」, 『日本醫史學會誌』2006;52(2). pp.273-292. 宋岡尙則·山下幸一·村崎徹, 「安土桃山時代における代用人蔘」, 『日本醫史學會誌』2006;52(3). p.351.

2) 長田德本에 대하여는 다음 자료에 자세하다. 富士川游 著, 박경·이상권 역. 『일본의학사』. 법인문화사. 2006. pp.252-257.

접수 ▶ 2012년 6월 29일 수정 ▶ 2012년 7월 25일 채택 ▶ 2012년 7월 30일
교신저자 오준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Tel 042-868-9317 Fax 042-863-9463 E-mail junho@kiom.re.kr

번역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논의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鍼灸極秘抄』에 대하여

이 한 권의 책은 옛날 慶長年間(1596-1615) 甲斐國의 良醫인 長田徳本이라는 사람【『매화무진장』의 작가이다】이 朝鮮의 醫官 金徳邦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침술이다. 그 후 田中知新에게 전수된 이후에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秘傳되어 전수될 때에는 구술에 의하거나 혹은 그 문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점만을 메모로 전수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침술의 전체를 익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내가 京師에서 유학할 때에 이 침술을 大坂의 原泰庵 선생에게 배웠는데 완전히 이해하게 해 주셨다. 그 후 매번 시험할 때마다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여러 번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금이라고 해도 산에 숨겨져 있거나 진주라고 해도 연못에 가라앉아 있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물며 의술은 천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집안에서 썩히는 것은 의술을 업으로 삼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수받은 구결의 각 조목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서 세상에 公刊하는 것이다. 이 책에 潛心하게 되면 간명하면서도 얻는 것은 몹시 클 것이다. 세상의 의술에 뜻 둔 사람들이 이 침법을 널리 세상에 베풀게 하는 것이 내가 속으로 바라는 바이다.

陸奥福島 木邨太仲元貞 쓰다⁴⁾

3) 본고의 저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와 텍스트이다. 한의고전명저총서DB에는 이 책의 제목이 ‘鍼灸極秘傳’으로 실려 있다.

4) 木邨太仲, 『鍼灸極秘抄』, 「自序」 “斯一卷ハ昔慶長年間甲斐ノ國ノ良醫長田徳本ト云人【『梅花無盡藏』ノ作者也】朝鮮國ノ醫官金徳邦ト云人ヨリ授リシ術ナリ。其後田中知新ニサツケテヨリ傳來リテ、其家家ニ秘シテ傳ルニ口受ヲ以テシ、或ハ其門ニ入ルトイヘトモ切紙ヲ以テ授テ、全備スル人稀ナリ。吾京師遊學ノ頃、術ヲ大坂ノ原泰庵先生ニ學ヒテ兩端ヲ叩ク。其後每每試ニ寔ニ死ヲ活スコトシハシハ也。予思フニ、金モ山ニ藏シ珠モ淵ニ沈メ置ハ何ノ益カアラン。矧ヤ醫術ハ天下ノ民命ニカカルモノナリ。是ヲ家ニ朽サンコト醫ヲ業トスル者ノ道ニ非スト。此故ニ傳受口訣ノ條條一事モ遺サス書アラハシテ世ニ公ニ

이상은 『鍼灸極秘抄』을 세상에 公刊한 木邨元貞의 「自序」全文이다. 『鍼灸極秘抄』은 분량이 아주 적은 袖珍本의 서적으로, 의학적 이론 등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한 정보만 있으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병증 대 치법으로 이루어진, 몹시 실용성이 강조된 서적이다. 自序의 내용처럼 田中知新 집안에서 대대로 秘傳되면서 구술과 메모 등에 의해 전해진 것에 연유된 탓인지 치법을 다룬 부분이 일관적인 체계 하에 묶여 있지 않아 임상에서 적극 사용했음을 누구나 간과할 수 있다. 「自序」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 책은 甲斐徳本翁이라는 존칭으로 불렸던 長田徳本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김덕방에게서 전수 받은 침법으로 구성된 서적으로, 長田徳本 이후 田中知新 → 原恭庵 → 木邨元貞을 거치며 오늘날의 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木邨元貞은 김덕방 침술의 전체를 꿰뚫은 이후, “전수받은 구결의 각 조목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서 세상에 公刊”하게 되었던 것이다.

2. 『鍼灸極秘抄』의 체제

본서는 「序」(荻野元凱)와 「自序」(木邨太仲), 그리고 「跋」(藤晁明)이 붙어 있으며, 서발을 제외한 중심 되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침을 놓는 경우의 금기사항이나 침법의 대의에 대한 부분으로 모두 7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다음과 같다. 「鍼治大意」, 「先禁忌ヲ心得ヘキ事[먼저 명심해야 할 금기사항]」, 「鍼シテ誤シ時刺直スヘキ事[침을 잘못 놓았을 때 다시 침을 놓아야 하는 사항]」, 「補瀉迎隨直亂ノ事[補瀉迎隨와 直亂에 대하여]」, 「別傳」, 「阿是問答ノ穴ト云事[아시 문답의 혈에 대하여]」, 「中腕ハ妙穴タルコトヲ心得ヘキ事[중완은 묘혈(妙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秘傳之條條[비전의 조목들]」로 총 114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가 ‘병증 대 처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이 본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치법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スル者ナリ。能此書ニ心ヲロソメハ簡ニシテ得ル處大ナルヘシ。世ノ術ニ志ス人人此法ヲ以テ弘ク世ニ施サハ予カ本懐ナリ。陸奥福島 木邨太仲元貞 書。”

세 번째 부분은 「俞穴解[수혈해]」로, 수혈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수혈의 위치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였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俞穴解 中 騎馬[騎竹馬] 부분〉

걸터앉은 대나무의 가장자리에서 위쪽으로 5치 떨어진 등의 혈과 양옆으로 5분 떨어진 2혈, 이렇게 3곳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 1치 떨어진 곳의 3혈이다. 이렇게 도합 6혈이다.

이상은 (112) 赤白帶下妙灸 부분과 부합되는 곳으로, (112)에서는 단지 “환자를 죽마에 태우고”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정확한 방식을 글로서 깨우치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상과 같이 자세한 取穴 관련 그림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인 「秘傳之條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에는 치법과 관련된 病因이나 穴位가 가지는 主治, 議論 등이 일절 없으며 ‘병증 대 처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용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병증의 나열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일괄적인 제시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東醫寶鑑』 체계에 입각하여 내용 제시를 하기로 한다. 표에 보이는 번호는 『鍼灸極秘抄』 각 조문에 본고 저자가 붙인 일련번호이다.(전문의 내용은 말미의 부록 참조)

〈Table 1〉 『東醫寶鑑』 목차에 따라 분류한 『鍼灸極秘抄』 「秘傳之條條」의 주치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번호	주치(원문)	주치(국역)
內景篇	精	遺精	61	遺精【路せつする人】	유정
	氣				
	神	癲癇	4	癲癇【てんかん】	전간
		痰厥	8	痰厥、昏昧卒倒。【たんつまりて急にたおれたる】	담결로 정신이 혼미해져 졸도한 경우.
			89	痰厥欲絶、痰胸膈塞昏迷者【なんのはりて死なんとする人】	담결로 쓰러지려고 하거나 흉격에 담이 막혀 정신이 혼미한 경우
	血	咳血	50	咳血【せきに血のまじる人】	해혈【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吐血	51	吐血【血をはく人】	피를 토하는 경우
		衄血	52	衄血【はな血いづる人】	코피
		下血	53	下血【血のくだる人】	하혈
		瘀血痛	102	瘀血心腹痛不可忍者【ふる血にてむねはらいたむ人】	어혈로 가슴과 배가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경우
	夢				
	聲音				
	言語				
	津液	盜汗	85	盜汗【ねあせいづる人】	도한【자면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
	痰飲				
	胞	經閉	78	經閉作塊者【月やくとどこおりにかたまりになる人】	월경이 막혀 덩어리가 진 경우
		崩血	101	崩血【小に血がくだりて死んとする人】	붕혈【조금씩 피가 하혈되어 죽을 것 같은 경우】
		赤白帶下	112	赤白帶下妙灸【しら血長血の妙灸】	적대하와 백대하에 좋은 뜸법
	蟲				
	小便	遺尿	91	遺尿【ねしょうべん、またざしきにてもらす人】	유뇨【자면서 소변이 나오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변이 세는 경우】
淋		60	淋病【りんひやう】	임병	
小便閉		20	小便閉悶絶者【小便つまりの人】	소변이 막혀 답답하여 기질한 경우	

『鍼灸極秘抄』研究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번호	주치(원문)	주치(국역)
大便	痢	泄瀉	44	泄瀉	설사
		痢	24	休息痢【げりひやう】	휴식리【만성 이질】
			42	痢病【赤なめ、白なめ、しぶりはら】	이병【赤痢, 白痢, 뱃속이 무지근한 경우】
			43	又極效ノ方	효험이 몹시 좋은 또 다른 처방
	後重	45	裏急後重【しぶりはら。いきみでも通ぜぬ人】	뱃속이 땅기고 뒤가 무지근한 경우【뱃속이 무지근한 경우. 배에 힘을 주어도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大便閉	90	大便閉【大べんつまりて、又久しくせぬ人】	대변폐【대변이 막히고 또 오랫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경우】	
頭	頭痛	47	頭痛【ずつう】	두통	
	眩暈	59	眩暈【めまひ】	현훈【어지럼증】	
面	面瘡	68	面瘡【かおの内のももの】	면창	
眼	眼目	65	眼目【めのやまひ】 灸肝俞 脾俞 三里	눈병 간수 비수 삼리에 뜸을 뜬다.	
	眼痛	66	眼中血多痛或爛眩者【目の内血の多き人又ただれ目】	눈 속에 피가 많이 몰려서 아프거나 짓무르고 어지러운 경우	
	雀目	15	雀【雀】目【日くれかたより目のみえぬもの】	작목【해질녘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耳					
鼻					
口舌	口舌生瘡	54	口舌生瘡【口中またしたにかさいづる人】	입속과 혀에 창(瘡)이 생기는 경우	
牙齒					
咽喉	喉痺	3	喉痺【にわかになどのはれふさがる】	후비【갑자기 목구멍이 부어서 막히는 것이다.】	
	咽喉閉	111	咽喉塞、三日水穀不通【こうひ二三日薬水ともに通らぬ人】	인후가 막혀 3일 동안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후비(喉痺)로 2~3일 동안 약이나 물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頸項	頸項痛	41	頸項痛【くびすじひきつりいたみ】	목과 뒷목이 땅기고 아픈 경우	
背	背痛	37	背痛【せのいたみ】	등이 아픈 경우	
胸	心痛	10	心腹卒痛、自汗出者。【むねはち急にいたみ、あせのいつるに】	명치가 갑자기 아프고 자한(自汗)이 나는 경우.	
	胸痛	25	胸痛口噤者【むねいたみてとりつめたる人】	가슴이 아프고 이를 악다문 경우	
		34	胸痛【むねのいたみ】	흉통	
	胃脘痛	32	胃脘痛【むねよりへその上いたむ人】	위완통【가슴부터 배꼽 위까지가 아픈 경우】	
	心下痞	33	心下痞悶不食【むねの下つかえてふしょく】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여 먹지 못하는 경우	
	血結胸	102	瘀血心腹痛不可忍者【ふる血にてむねはらいたむ人】	어혈로 가슴과 배가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경우	
乳	乳腫痛	107	乳腫痛【ちちのはれたる人】	젖이 붓고 아픈 경우	
腹	腹痛	27	腹痛【はらのいたみ】	복통	
		28	又方【はらのいたみ】	복통의 또 다른 처방	
	腹鳴				
	<不明>	36	腹脹硬或小腹堅【ふかみかたく、おしてはらはりたる人】	배가 탄탄히 불러오거나 아랫배가 탄탄해지는 경우	
臍					
腰	腰痛	48	腰痛【こしのいたみ】	요통	
		56	腰痛【せんきのこしのいたみ】	산증(疝症)에 의한 요통	
	婦人腰痛	77	婦人腰痛甚小便澀者【女こしいたみて小べんしぶる人】	부인이 심한 요통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脇					
皮					
肉					
脈					
筋	轉筋	12	轉筋脚氣【かつけ、すじのつまる人に】	근이 뒤틀리는 경우와 각기.	
	筋急	86	筋急【あしの筋引つる人】	근급【다리의 근이 땅기는 경우】	
骨					
手	鵝掌風	26	鵝掌風【うらむしにて手のひらの皮のむけ、さけなどするに】	아장풍【うらむ시 때문에 손바닥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증상】	
	肩痛	38	肩痛【かたのいたみ】	어깨가 아픈 경우	
	臂痛	39	臂痛【ひじのいたみ】	팔꿈치가 아픈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번호	주치(원문)	주치(국역)
		腕痛	40	腕痛【うでのいたみ】	팔이 아픈 경우
	足	脚氣	12	轉筋脚氣【かつけ、すじのつまる人に】	근이 뒤틀리는 경우와 각기
62			脚氣【かつけ】	각기	
痿證		13	中風足麻痺痿弱、不覺痛痒。【中風、手足しびれ、なえたる人】	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되고 약해졌으나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는 경우	
	毛髮				
	前陰	陰丸腫	67	陰丸腫·使毒·下疳·玉莖腫【よこね、かんそう、くきのはれたる人】	음환종·변독·하감·음경종
		陰臭	94	陰臭【女のまへのくさはたびたびさしてよし】	陰臭【여자 음부의 역한 냄새에는 자주 침을 놓으면 좋다】
		內下疳	95	內下疳、莖中痛【ウミ出ルなり。りんびやうとはちがふなり】	음부의 하감창 및 음경의 통증【틈이 생긴 것이다. 임병(淋病)과는 다른 것이다.】
	後陰	脫肛	113	痢病·脫肛·五痔·下血【しぶりはらでおすべてのちはしりち】	이병·탈항·오치·하혈
		五痔	113	痢病·脫肛·五痔·下血【しぶりはらでおすべてのちはしりち】	이병·탈항·오치·하혈
	風	卒中風	5	卒中風、不知人事、牙關緊急。【そつちう風、正体たたくなく、はをくひしめたる人】	갑작스런 중풍으로 인사불성이 되어 이를 악다문 경우.
			13	中風足麻痺痿弱、不覺痛痒。【中風、手足しびれ、なえたる人】	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되고 약해졌으나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는 경우.
	寒	中寒	98	中寒身無熱、吐瀉腹痛、厥冷如過肘者【寒毒にあたりてひえあがりて吐瀉し、はらいたむ人】	중한(中寒)으로 몸에 열은 없으나 토하고 설사하며 배가 아프고 썩랭(厥冷)으로 싸늘함이 팔을 지나는 듯한 경우
	暑	中暑	99	中暑口渴或吐瀉【暑氣にあたりて口かわき、はきくだしする人】	더위를 먹어 갈증이 나거나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中暑卒倒	100	中暑卒倒、角弓反張、手足搐搦【しよにあたりてそりかえりたる人】	더위를 먹어 졸도하고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며 손발에 경련이 이는 경우
		注夏病	110	注夏病【なつの時びょうもち】	주하병【여름에 생기는 병이다】
	濕	中濕	109	中濕腰背拘急、脚重疼痛【しつにあたりてこしせなかあし引きつりいたむ】	중습(中濕)으로 허리 등 등이 땅기고 다리가 붓고 아픈 경우
	燥				
	火				
	內傷	食傷	29	食傷【しょくあたり】	식상
		吞酸	21	吞酸刺心【むねのやく人】	탄산(吞酸)이 가슴을 찌르는 경우
		注夏病	110	注夏病【なつの時びょうもち】	주하병【여름에 생기는 병이다】
	虛勞				
	霍亂	霍亂嘔吐	79	霍亂嘔吐者【かくらん、はくことしげく、からえづきある人】	곽란구토【곽란으로 심하게 토하며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
			80	霍亂吐瀉者【かくらん、はきたり、下したりする人】	곽란토사【곽란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乾霍亂	81	乾霍亂無吐瀉而唯悶絕者【かくらん、吐も瀉もなく、もんぜつする人】	건곽란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하지는 않지만 답답하여 기절하는 경우
			82	霍亂以取吐爲先【かくらんは、はやく吐きてよき事】	곽란에는 토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낫다
	嘔吐	嘔吐	88	嘔吐【からえづき、或は物をはく人】	구토【헛구역질 혹은 무언가를 토하는 경우】
		嘔逆	46	嘔逆【からえづき】	구역질
		飜胃	35	飜胃【食物をはくやまひ】	번위【음식을 토해내는 병】
		欲吐	87	諸病欲取吐則可刺事【諸病吐せたくおもふ時】	온갖 병에 토하려고 할 때의 자침
	咳嗽	咳嗽	49	咳嗽【せき、しわぶき】	해수
		喘	11	喘促急迫【ぜんそく、かたにていきする人】	숨이 가쁜 경우
	積聚	積聚	30	積聚【しゃくつかえ】	적취
			31	又方【しゃくつかえ】	적취의 또 다른 처방
			97	積聚腹脹如石、坐臥不安、二便澀上氣遍身腫【しゃくじゅうにありて石のごとく、小便つうせず、總身はれる人】	적취로 복부가 돌처럼 딱딱하게 창만하여 앉거나 눕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대소변이 막혀 상기되고 온 몸이 붓는 경우
	浮腫	水腫	63	水腫【しゅき、はれやまひ】	수종【종기. 붓는 병】
			64	水腫遍身滿者【水しゅ總身はれたる】	수종(水腫)이 온몸에 가득한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번호	주치(원문)	주치(국역)
雜病篇	脹滿				
	消渴				
	黃疸	黃疸	55	黃疸【おうだん】	황달
	痲瘡	瘡疾	57	瘡疾【ぎやく、おこり、舊わらわやみと云】	학질
		截瘡	58	截瘡【おこりをきるに刺すべき妙術】	학질을 끊는 법【학질이 발발했을 때 자침할만한 묘술이다】
	瘟疫				
	邪祟				
	癰疽	疔	16	疔【面の内 手足にせつの出もの】	정(疔)【얼굴이나 손발에 부스럼[癰]이 난 것】
	諸瘡	瘡腫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창종·안창·제창
		雁瘡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창종·안창·제창
		諸瘡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창종·안창·제창
		早瘡	92	早瘡【はやくさとて大せつの症なり】	조창
		癩病	96	癩病【さんびやう、かったいともいう】	나병
	諸傷	金瘡	17	金瘡氣附鍼【刀にてきられし人のきつけ】	칼에 베어 기절할 경우에 깨어나게 하는 침
			18	金瘡瘀血、逆上攻心狂氣者。【きりきずの悪血せめのばり氣のちがう人】	칼에 베어 생긴 어혈이 위를 치받아 심을 쳐서 미친 경우
		打撲	19	陰丸打撲絶氣者【きん玉を打て氣を失う人】	음낭을 얻어맞아 기절할 경우
		墜墮	23	登高落絶氣者【高き所より落て氣を失ふ】	높은 곳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은 경우
	解毒	中魚毒	6	中魚毒【うをのどくにあたる】	생선 독에 중독된 경우.
		河豚毒	7	河豚毒【ふくのどくにあたる】	복어독에 중독된 경우.
	救急	氣附鍼	1	氣附鍼【氣つけのはり】	기절한 사람을 깨우는 침
		日腫	2	日腫	日腫
		溺死	69	溺死【水におぼれたる人】	익사
		縊死	84	縊死者【くびをくくりて死する人】	목매달아 죽은 경우
	怪疾	陰煩	83	陰煩者一曰離魂病【何となくもだえて死せんとする人】	음번(陰煩)은 이혼병(離魂病)이라고도 한다【이유없이 갑갑하여 죽을 것만 같은 경우】
	雜方				
	婦人	子癰	93	子癰【母のはらの内にて子が狂ふて氣を失ふなり】	자간【엄마 뱃속의 태아가 미쳐서 정신을 잃는 것】
		難産	70	難産【なんざん甚妙なり。必ずすくうべし】	난산【난산에 신묘한 효험이 있다. 이 처방을 쓰면 반드시 사람을 구하게 된다.】
			71	又方【是を陽龍の傳という。人をすくう事たびたびなり、必ずすくうべし】	난산을 치료하는 또 다른 처방【이것을 양용전(陽龍傳)이라고 한다.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 반드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72	阿蘭陀人口授秘藥【甚妙劑なり、まことに日本の寶とおもふなり】	네덜란드인에게서 전해진 묘약【신묘한 약이다. 진정 일본의 보배로 여길 만하다.】
		死胎	106	死胎必脈沈而小腹冷也【なんざん、死胎をくだすに】	사태(死胎)가 있을 경우에는 맥이 반드시 침하고 아랫배가 차갑다.
		産後血量	73	産後血量氣附【さんこのむりしたる時】	산후의 혈훈에 정신을 들게 하는 방법【산후에 무리를 한 경우】
			74	又方血量及因瘀血狂氣者【おけつの症、氣のちがう人】	또 다른 처방. 혈훈이나 어혈로 인해 미친 경우
		後惡露不下	75	産後惡露不下胸腹痛妨悶者【おけつよく下りかねて、むねはらいたむ人】	산후에 오로가 나오지 않아 가슴과 배가 아프고 막히고 답답한 경우
		臍下結塊	76	臍下結塊如伏杯者【へその下のかたまり、手にあたる事こぶし入るごとし】	배꼽 아래 그릇을 얹어놓은 것처럼 덩어리가 진 경우【배꼽 아래에 덩어리가 지되 손으로 만져보면 주먹을 넣은 것 같은 경우】
	小兒	驚風	9	小兒驚風【きやうふう】	소아경풍
		急驚風	105	急驚風【きゅうきょうふう、目を引きつけたるに】	급경풍【눈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慢驚風	14	慢驚風、搐搦反張、熱少者。【まんきやうふうそりがりたる小兒】	만경풍으로 경련이 일고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나 열이 적은 아이의 경우.
		頭瘡	22	惡痘瘡血熱甚者【あしきとうそうに血をとるべきこと】	두창 악증으로 피를 뽑아야 하는 경우
		小兒舌瘡	103	小兒舌瘡【子どものしたにかき出る時】	소아설창【어린 아이의 혀에 창(瘡)이 난 경우】
		小兒夜啼	104	小兒夜啼【小兒のよなきに】	소아야제【어린 아이가 자다가 우는 경우】
吐乳		108	吐乳不止【小兒ちちをはく時】	어린 아이가 젖을 계속해서 토하는 경우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醫寶鑑』의 편제로 보더라도 병증 및 치법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의 소분류에 골고루 배치되어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만큼 모든 항에 걸쳐져 있다. 다시 말해 책의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치법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 身形, 氣, 天地運氣 등 추상적 이론이나 의론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이 책이 임상에서 얻은 성과를 모은 것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것이 自序에서 “구술에 의하거나 혹은 그 문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점만을 메모로 전수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침술의 전체를 익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의론화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3. 『鍼灸極秘抄』의 특성

이상 밝힌 바와 같이 『鍼灸極秘抄』는 애초에 소책자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일관된 이론으로 꿰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병증에 대한 처방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추상적 의론이 일절 배제되어 있는 임상 전문서이다.

이 책에 보이는 대부분의 치법은 鍼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혹 灸法으로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으며, 鍼法과 灸法이 섞인 것도 있다. 그리고 難産에 대한 항인 (72) 阿蘭陀人口授秘藥나 癩亂에 썼던 처방인 (82) 霍亂以取吐爲先 등 약에 의한 처방도 보인다. 이 책은 하나의 이론으로도 꿰어지지 않을 뿐더러 작은 책자 속에 온갖 치료법들이 다 온축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임상에 최적화된 임상 전문서인 셈이다.

이 외에 이 책은 매우 특기할만한 사항이 포착된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 取血과 관련된 내용이 유난히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다음 글을 보자.

또 침으로 取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효험이 몹시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세속에서는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귀한 사람은 더욱 그것을 꺼린다. 그것은 사람은 혈과 기의 有餘不足에 의해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血實血滯의 병이 생기는 경우, 그 피를 뽑아 안정된다면 무엇을 꺼릴 것이 있겠는가?⁵⁾

이상은 「鍼治大意」에 보이는 사항으로, 血實血滯의 병의 경우 取血하는 것이 효험에 있어 몹시 빠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귀한 사람일수록 取血을 꺼리는 당시 상황에서 과감하게 取血法을 채택했다는 것이 특기할 일이다. 때문에 荻野元凱가 남긴 「序」의 첫머리에 長田德本이 임상에서 取血로 큰 효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⁶⁾은 다름 아닌 임상에서 取血法이 거의 쓰이지 않던 상황에서 발견한 몹시 낮은 장면인 것이다. 그낮선 장면이 바로 이 서적의 몹시 중요한 귀결점 중 하나인 것은, 이 책의 곳곳에 取血하는 치법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일련번호와 주치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2) 日腫
- (3) 喉痺
- (7) 河豚毒
- (10) 心腹卒痛、自汗出者。
- (15) 省[雀]目
- (16) 疔
- (22) 惡痘瘡血熱甚者
- (54) 口舌生瘡
- (65) 眼目
- (68) 面瘡
- (81) 乾霍亂無吐瀉而唯悶絕者
- (92) 早瘡
- (95) 內下疳、莖中痛
- (96) 癩病
- (102) 癩血心腹痛不可忍者
- (103) 小兒舌瘡
- (111) 咽喉塞、三日水穀不通
-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5) 木邨太伸. 위와 같은 책. 「鍼治大意」 “又針ニテ血ヲ取コトアリ。甚[其]速效アルコトナリ。然レトモ近世ノ民俗、身ヨリ血ヲ出コトヲ忌テ恐ルルモノアリ。貴人ハイヨイヨ忌憚ルナリ。夫レ人ハ血ト氣トノ有餘不足ニヨリテ病ヲナスコトヲ辨ヌカ故ナリ。血實血滯ノ病ヲナスモノ、其血ヲ取り捨テ平身ニスルコト、何カヲソルルニ足ンヤ。”

6) 木邨太伸. 위와 같은 책. 「序」 “河賢治者爲余言：‘我聞之故老，德本之治病，不待制齊，刺輸取絡而濟，恒居多也。’[하현치(河賢治)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내가 어르신께 들으니 덕본(德本) 선생이 병을 치료할 때는 약을 제조할 것도 없이 수혈(輸穴)에 자침하고 낙맥에 취혈(取血)하여 낮게 한 경우가 평소에도 많았다.’”

114건 중 모두 18건이 나왔으니 取血法은 총 주치의 1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 (15), (22), (114) 등에서는 랜셋(lancet, 양날의 끝이 뾰족한 의료용 칼)으로 찢어서 피를 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모든 병증에 取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取血法이 몹시 빠른 치법이기는 하나 그만큼 부작용도 많았던 듯, 예를 들면 (65) 眼目에서는 “눈꺼풀이 부어서 아픈 경우, 그리고 적육(赤肉)이 눈 속에 나서 눈곱이 많이 짓무르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피를 뽑고 침을 놓으면 좋다. 이외의 증상에는 피를 뽑아서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取血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병에 따라서 取血하는 것을 꺼리는 증상이 있다. 기와 혈이 모두 허한 사람과 임신을 했거나 혹은 산후에 오랫동안 병을 앓은 뒤인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야 한다. 더욱이 그 증상을 살필 수 없는 의인은 아는 사람에게 일임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침을 써야 하는 증상과 取血해야 하는 증상은 서로 비슷하다. 땀을 땀야 하는 증상과 침을 써야하거나 取血해야 하는 증상과는 천양지차가 난다. 그 상반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개 허한 사람에게는 땀을 뜨고 실한 사람에게는 침을 쓰거나 取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⁷⁾

이상에서 알 수 있듯 取血에서 꺼리는 증상이 있으며 사람의 허실에 따라 침과 땀을 쓰는 차이도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 “사람마다 형색이 이미 다르면 오장육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증이 비록 같더라도 치료법은 매우 다르다.”⁸⁾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책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序」의

7) 木邨太仲. 위와 같은 책. 『鍼治大意』 “一. 病ニヨリテ血ヲ出スコトヲ忌ム症モアリ. 氣血兩虛ノ人ト冷症ト妊娠或産後長病ノ後等也. 意ヲ以テ察スヘシ. 尤其症ヲ察シ得サル醫人ハ識者ニユツリテ人ヲ毀コトナカレ. 一. 鍼スヘキ症ト血ヲ取ルヘキ症ハ相似タリ. 灸スヘキ症ト針スヘキ症、血ヲ取ルヘキ症トハ雲壤ノ隔ナリ. 其相反スルコトヲ知ヘシ. 大槩虛者ニハ灸シ、實ニハ鍼シ、亦血ヲ取ト心得ヘシ.”

8) 『東醫寶鑑』. “形色既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남산당. 1998.

첫머리에서 長田德本の 取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책에 흔히 보이는 取血法이 당시의 의사들에게는 몹시 낯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선 전기 이미 조선에서 많은 증상에 取血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治腫指南』와 이 책이 몹시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일러주는 사항이기도 하다.⁹⁾ 미키사카에가 『朝鮮醫學史』에서 이 책을 극찬한 것도 取血을 몹시 꺼리는 동양적 사고 패턴을 과감히 깨부순 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⁰⁾ 『治腫指南』 역시 이론을 토대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병증에 대한 처방이 나열된 서적이라는 면에서도 두 서적은 유사성을 보인다. 어찌면 우리나라 침술의 이러한 측면이 일본으로 고스란히 넘어가 長田德本이라는 거인의 침술로 거듭난 것이 아닐까 한다.

Ⅲ. 결론

이상 『鍼灸極秘抄』의 내용과 주요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9) 『治腫指南』에는 取血하는 곳이 곳곳에 보이며 특히 효과적 取血을 위해 오늘날의 부항에 해당하는 단지를 사용한 곳이 많이 보인다. 안상우·박상영 譯. 『국역 치종지남·지종비방』. 한국한의학회. 2008. 참조.

10) 三木榮은 任彦國의 治腫學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明 薛己의 『外科樞要』나 陳實功의 『外科正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18세기의 일본학자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京都大 소장본인 필사본 『치종지남』의 맨 마지막장에 남아 있는 丹波元簡의 識語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상 『治腫指南』 2권은 養安院 越公이 소장하고 있는 朝鮮槧本이다. 이것은 文祿 연간(1592~1595)에 빼앗아온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월공의 집안에는 또 조선사람 任彦國이 지은 『治腫秘方』 1권이 있다. 지금 이 책에는 찬술자의 성명을 기록해두지 않았으나 『치종비방』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임연국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임연국은 嘉靖 연간(1522~1566) 사람으로, 어떤 늙은 중에게서 침법을 전수받았는데 특히 종기 치료에 탁월하였다 하니 아마도 일반적인 針醫의 기술과는 크게 달랐던 것 같다. 天明 을사년(1785) 여름에 懷仙閣 위에서 이 책을 보고서는 마침내 빌려서 돌아와 베껴두고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 이해 10월 보름날에 丹波元簡이 기록한다. [右 『治腫指南』 二卷, 養安院越公藏朝鮮槧本云. 是文祿中所俘來, 最絶世之異編也. 公家又有朝鮮任彦國所著 『治腫秘方』 一卷, 今此書不錄撰者姓名, 而攷諸 『秘方』, 知亦成任氏之手焉. 彦國, 嘉靖間人, 授鍼法一老斃, 尤長於治腫, 蓋與尋常針醫之術, 大不同矣. 天明乙巳夏, 見之懷仙閣上, 遂借歸而影鈔, 以藏奉于家云. 是歲十月之望, 丹波元簡識.] 박상영·안상우. 『治腫指南 研究』, 『민족문화』. 2008;32. pp.339-363. 참조.

- 『鍼灸極秘抄』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나라의 金德邦이 남긴 의술이 長田德本 → 田中知新 → 原恭庵 → 木邨元貞 등을 거치며 완성된 서적이다. 때문에 이 서적에는 우리나라 의술의 면모와 의서의 면모가 어느 정도 간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鍼灸極秘抄』는 소책자이면서도 한 가지 한의학 적 이론에 포섭되지 않을뿐더러 치법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의학서이다. 이는 서적 성립 당시까지 임상에서 얻은 지식을 한 곳에 담은 결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임상에서 몹시 효험이 컸던 임상 전문서임을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鍼灸極秘抄』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치법은 取血法이다. 取血法은 당시 일본에서 몹시 꺼리는 치법 가운데 하나였으나, 金德邦과 長田德本の 임상을 거치면서 효험이 몹시 빠른 치법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일본에서는 몹시 꺼려하는 침법이었으나 우리나라의 『治腫指南』 등의 의서에서는 많은 부분 取血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침법의 이러한 면모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金德邦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 내 유사자료 취득과 판본조사, 그리고 국내의 유사자료에 대한 끊임없는 접근, 金德邦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명징한 고증 등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헌창의적 해석을 통한 미래지식보감 구축’(K12110)의 지원을 받아수행되었습니다.

V. 참고문헌

1. 宋岡尙則·山下幸一·村崎徹. 「文祿の役(壬辰の亂)における

- 日本, 朝鮮, 明醫學の交わり」. 『日本醫史學會誌』. 2006;52(2). pp.273-292.
2. 宋岡尙則·山下幸一·村崎徹. 「安土桃山時代における代用人蓼」. 『日本醫史學會誌』 2006;52(3). p.351.
3. 富士川游 著, 박경·이상권 역. 『일본의학사』, 법인문화사. 2006. pp.252-257.
4. 木邨太伸, 『鍼灸極秘抄』.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 2008.
5. 안상우·박상영 譯. 『국역 치중지남·지중비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6. 박상영·안상우. 「治腫指南 研究」. 『민족문화』 2008;32. pp.339-363.
7. 荒木ひろし, 『鍼灸極秘抄』, 谷口書店, 1990.

VI. 附錄

이곳에서는 『鍼灸極秘抄』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秘傳之條條」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원문에서 일본어의 습字는 풀었으며, 文言文에서는 탁음과 반탁음 등의 표시를 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표시하였다. 원문해독에는 다음 서적의 도움이 컸다. 荒木ひろし, 『鍼灸極秘抄』, 谷口書店, 1990.

- 秘傳之條條
- 비전의 조목들

- (1) 氣附鍼【氣つけのはり】
 隱白【一分】 足ノ三里【五分】
 기절환 사람을 깨우는 침
 은백【1푼】 족삼리【5푼】

- (2) 日腫¹¹⁾【はやけんへき、いきのならぬハ即卒厥病なり。甚大切の症なり。一時半時の間に死するなり。】

11) 日腫 : 일본 민간에서 행해진 속칭. 早痲痺, 速痲痺, 內肩, 早打肩(痲痺卒痛), 靑筋, 豆クイ 등으로도 불렸다. 그 증후는心痛(厥心痛과 眞心痛이 있다)과 유사하며 졸도기절하거나 어깨와 등이 무겁고 뻣뻣하고 뭉치고, 胸痛, 痲痺卒痛 등의 급작스런 증상을 보인다. 卒厥病, 尸厥, 胸絞發作 혹은 胸絞證(Angina Pectoris)에 비견된다.

腹痛・煩悶、人事ヲカヘリミズ、或肩強、胸エ引テ痛ミ、死セントスルナリ。又腫物ヲ發スルコトアリ。又前髮際ノホトリニ腫ヲ發スル者ハ朝ニ發シテ夕ニ死スルナリ。

治方：肩井【四分】 曲池【七分】 尺澤【三分】

此三穴ヨリ血ヲ取テヨシ。但ランセツタニテハネ切テ血ヲ出スヘシ。又甚重キ症ハ肩或ハ二推三推ノアタリヲ、小刀或カミソリニテ一寸許切サキテ血ヲ出スヘシ。如此セザレハ即死スルモノナリ。

日腫【속현벽(速痲癩), 숨을 쉴 수 없는 것은 바로 졸궤병(卒厥病)이다. 매우 위중한 증세이다. 2시간 혹은 1시간 내에 죽는다.]

복통(腹痛)·번민(煩悶)이 있고 인사불성이거나 혹은 어깨가 뻐뻐하면서 가슴으로 땅기면서 아파서 죽을 것만 같다. 또 중기가 나는 경우도 있다. 또 앞머리의 경계 부분(前髮際) 부근에 중기가 나는 경우에는 아침에 병이 났다가 저녁이면 죽는다.

치방(治方)：견정【4푼】 곡지【7푼】 척택【3푼】

이상 3혈에서 피를 뽑으면 좋다. 다만 랜싯(양날의 끝이 뾰족한 의료용 칼)으로 찢어서 피를 뽑아야 한다. 또 몹시 위중한 증세에는 어깨 혹은 2추, 3추 부근을 작은 칼이나 면도칼로 1치 가량 찢어서 피를 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

(3) 喉痺【にわかきののどのはれふさがる】

溫溜【三分】 天突【一分】 合谷【五分】 可刺。鬼當 少商【各一分】 血ヲ取。

후비【갑자기 목구멍이 부어서 막히는 것이다.]

온유【3푼】 천돌【1푼】 합곡【5푼】을 자침한다. 귀당 소상【각 1푼】에서 피를 뽑는다.

(4) 癲癇【てんかん】

鳩尾【五分、下エフセテ】 百會【三分】 中腕【八分】

전간

구미【5푼.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자침한다.】 백회【3푼】 중완【8푼】

(5) 卒中風、不知人事、牙關緊急。【そつちう風、

正体たがなく、はをくひしめたる人】

人中【二三分】 臨泣【二分】 合谷【三分五分】

갑작스런 중풍으로 인사불성이 되어 이를 악다문 경우.

인중【2~3푼】 임읍【2푼】 합곡【3~5푼】

(6) 中魚毒【うをのどくにあたる】

中腕【八分】 梁門【一寸】

생선 독에 중독된 경우.

중완【8푼】 양문【1치】

(7) 河豚毒【ふくのどくにあたる】

尺澤【三分】 少商【一分】 鬼當【一分】 以上血ヲ取。

복어독에 중독된 경우.

척택【3푼】 소상【1푼】 귀당【1푼】 이상의 혈에서 피를 뽑는다.

(8) 痰厥、昏昧卒倒。【たんつまりて急にたおれたる】

關元【一寸】 氣海【八分】 臨泣【二分】 湧泉【五分】

담궤로 정신이 혼미해져 졸도한 경우.

관원【1치】 기해【8푼】 임읍【2푼】 용천【5푼】

(9) 小兒驚風【きやうふう】

風門 腎俞【各十四壯灸スヘシ】 甚妙ナリ。

소아경풍

풍문 신수【각 14장 뜸을 뜬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10) 心腹卒痛、自汗出者。

【むねはち急にいたみ、あせのいつるに】

間使【五分】 神門【四分】 列缺【三分】 甚者大敦ノ血ヲ出スヘシ。

명치가 갑자기 아프고 자한(自汗)이 나는 경우.

간사【5푼】 신문【4푼】 열결【3푼】 심한 경우에는 대돈에서 피를 뽑는다.

(11) 喘促急迫【ぜんそく、かたにていきする人】

湧泉【五分】 勞宮【二分】 甚妙なり。灸肺俞。

숨이 가쁜 경우.

용천【5푼】 노궁【2푼】 신묘한 효험이 있다. 폐수에 뜸을 뜬다.

(12) 轉筋脚氣【かつけ、すじのつまる人に】

兼【承】山【直五分】

근이 뒤틀리는 경우와 각기.

승산【곧추 세워 5푼 자침한다】

(13) 中風足麻痺痿弱、不覺痛痒。【中風、手足しびれ、なえたる人】

風市ノ外二寸、亦上二寸ノ處、足ノ三里ノ外二寸ノ處。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되고 약해졌으나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는 경우.

풍사에서 바깥으로 2치, 위쪽으로 2치 떨어진 곳과 족삼리에서 바깥으로 2치 떨어진 곳.

(14) 慢驚風、搐搦反張、熱少者。

【まんきやうふうそりがりたる小兒】

中腕【五分】 委中【三分】 泉生足【二分】

만경풍으로 경련이 일고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나 열이 적은 아이의 경우.

중완【5푼】 위중【3푼】 천생족【2푼】

(15) 雀【雀】目【日くれかたより目のみえぬもの】

少商 血ヲ出ス。但ランセツタニテハネ切テヨシ。

작목【해질녘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소상에서 피를 뽑는다. 다만 랜릿(양날의 끝이 뾰족한 의료용 칼)으로 찌르면 좋다.

(16) 疔【面の内 手足にせつの出もの】

大事ノ症ナリ。手足或鼻ノ下ニ小ク出テ初カユク、サテイタミテ一日ノ中ニモ死スルモノアリ。急ナルモノナリ。

頸項ヨリ上ミ及手ハ、先其發スル所ニ針シテ血ヲトリ、列缺ノ上ミ三寸陷中ニ灸三五壯。妙ナリ。

정(疔)【얼굴이나 손발에 부스럼[癰]이 난 것】

심각한 증상이다. 처음에는 손발이나 코 아래에 조그마하게 나서 가렵다가 나중에는 아파서 하루 안에 죽는 경우가 있다. 위급한 증상인 것이다.

목보다 위쪽과 손에 생긴 경우에는, 우선 정이 생긴 곳에 침을 놓아 피를 뽑고 열결에서 위쪽으로 3치 떨어져 움푹한 곳에 3~5장 뜬을 뜬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17) 金瘡氣附鍼【刀にてきられし人のきつけ】

勞宮【二分或一寸】 百會【二分】 關衝【二分】

칼에 베어 기절할 경우에 깨어나게 하는 침

노궁【2푼 혹은 1치】 백회【2푼】 관충【2푼】

(18) 金瘡瘀血、逆上攻心狂氣者。【きりきずの惡血せめのぼり氣のちがう人】

百會【二分】 足三里【五分】 合谷【三分或五分】

칼에 베어 생긴 어혈이 위를 치받아 심을 쳐서 미친 경우 백회【2푼】 족삼리【5푼】 합곡【3푼 혹은 5푼】

(19) 陰丸打撲絶氣者【きん玉を打て氣を失う人】

必ス陰囊ニ赤筋アルナリ。其集リタル根ニ唐茴香ヲ粉ニシテ、ツワニテ堅メ敷テ、其上ニ灸三五壯、關元七壯。

음낭을 얻어맞아 기절할 경우

반드시 음낭에 적근(赤筋)이 생긴다. 그것이 모여 있는 뿌리 부분에 당회향을 가루 내어 침으로 반죽하여 단단히 붙이고 그 위에 3~5장 뜬을 뜨고, 관원에 7장 뜬을 뜬다.

(20) 小便閉悶絶者【小便つまりの人】

先鹽一二舛湯ニ煎シテ大ダライニ入テ腰湯ヲサセテ、サテ蒲團ニ寐サセテ四滿ノ穴【但膻下二寸ノ傍五分ノ處ナリ】鍼先ヲ兩方ヨリ内ニテ



如此ニナルヤウニ刺ヘシ。但深ク刺テヨシ。其後委陽【尻ノヨコ文ヨリ六寸下ナリ】五分可刺。【若孕婦ハ委陽ノ穴ハカリ刺ヘシ】

소변이 막혀 답답하여 기절할 경우

소금 1~2천(舛)을 끓는 물에 달여 큰 대야에 넣고 반신욕을 시킨다. 그리고 이불에 눕힌 뒤 사만혈【배꼽 2촌 아래에서 양옆으로 5푼 떨어진 곳이다】에 침끝을 양쪽에서 안으로 그림과 같이 하여 찌르는데, 깊게 찌러야 좋다. 그 후에 위양혈【영덩이 횡문에서 6치 아래에 있다】에 5푼 찌른다.【임산부의 경우에는 위양혈만 찌러야 한다】

(21) 吞酸刺心【むねのやく人】

泉生足【一分】 足ノ中指ノ兩フシノ正中、若甚則灸スヘシ。

탄산(吞酸)이 가슴을 찌르는 경우

천생족【1푼】 가운데 발가락의 두 관절의 가운데에

다. 심할 경우에는 뜸을 뜨는 것이 좋다.

(22) 惡痘瘡血熱甚者【あしきとうそうに血をとるべきこと】

其小兒ノ中指ノ中ノ折一折ヲ取、夫ヲ三折分委中ノ横文ニアテテ盡ル所ヲランセツタニテハネ切テ血ヲ取ヘシ。但痘瘡ココカシコニ出ル時分ニ行フテヨシ。遅ケレハ益ナシ。

두창 악증으로 피를 뽑아야 하는 경우

소아의 중지의 가운데 마디를 1마디로 삼는다. 그 3마디 길이를 위중의 횡문에 대었을 때 끝나는 곳을 랜셋(양날의 끝이 뾰족한 의료용 칼)으로 찢어서 피를 낸다. 이 치법은 두창이 여기저기 날 무렵에 시술하는 것이 좋으며 늦게 시술하면 이익될 것이 없다.

(23) 登高落絶氣者【高き所より落て氣を失ふ】

廉【廉】泉【五分】 勞宮【八分】 但此時許八分刺ヘシ。常ニハ深ク刺ヘカラス。

높은 곳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은 경우

염천【5푼】 노궁【8푼】 다만 이러한 경우에만 8푼을 자침할 수 있다. 평소에는 깊게 자침해서는 안 된다.

(24) 休息痢【げりひやう】

氣海【八分】 天樞【五分】 甚者灸スヘシ。

휴식리【만성 이질】

기해【8푼】 천추【5푼】 심한 경우에는 뜸을 떠야 한다.

(25) 胸痛口噤者【むねいたみてとりつめたる人】

大陵【八分】 神門【三分】 期門【四分】 各刺ヘシ。

가슴이 아프고 입을 악다문 경우

대릉【8푼】 신문【3푼】 기문【4푼】 각각 이상과 같이 자침한다.

(26) 鵝掌風【うらむしにて手のひらの皮のむけ、さけなどするに】

間使【灸七壯】

아장풍【우라む시 때문에 손바닥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증상】

간사【7장 뜸을 뜬다】

(27) 腹痛【はらのいたみ】

建里【八分】 三陰交 大衝【三分】 大白 大淵【二分】 大陵【八分】 又阿是問答ノ法ヲ用ヘシ。

복통

건리【8푼】 삼음교 태충【3푼】 대백 대연【2푼】 대릉【8푼】 또 아시문답의 방법을 써야 한다.

(28) 又方【はらのいたみ】

臍上痛者 中脘【八分】 豐隆【五分】

臍下ハ 三陰交【三分】 陰陵泉【五分】

복통의 또 다른 처방

배꼽 위쪽이 아픈 경우 중완【8푼】 풍릉【5푼】

배꼽 아래쪽이 아픈 경우 삼음교【3푼】 음릉천【5푼】

(29) 食傷【しょくあたり】

中脘 天樞【八分】 梁門【一寸】 公孫【四分】

欲吐 中脘【八分】

灸脾俞【十一】 三里

식상

중완 천추【8푼】 양문【1치】 공손【4푼】

토하려 하는 경우 중완【8푼】

비수에 11장 뜸을 뜨고 족삼리에 뜸을 뜬다.

(30) 積聚【しゃくつかえ】

章門 期門【六分】 關元【一寸或二寸】

灸肺俞 鬲俞 七 脾俞 三焦俞 十三

적취

장문 기문【6푼】 관원【1치 혹은 2치】

폐수 격수에 7장, 비수 삼초수에 13장 뜸을 뜬다.

(31) 又方【しゃくつかえ】

天樞 中脘【一寸】 凡積ノ正中ヲ刺ヘカラス。其動スル物ヲ除テ其傍ヲ刺ヘシ。

적취의 또 다른 처방

천추 중완【1치】 적취의 한가운데를 찢어서는 안 된다. 그 움직이는 것을 제거하고 가에 자침해야 한다.

(32) 胃脘痛【むねよりへその上いたむ人】

肝俞【三分】 脾俞【三分】 足三里【五分】

위완통【가슴부터 배꼽 위까지가 아픈 경우】

간수【3푼】 비수【3푼】 족삼리【5푼】

(33) 心下痞悶不食【むねの下つかえてふしょく】
湧泉【五分】 太白【三分】 大陵【八分】 神門【三分】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여 먹지 못하는 경우
용천【5푼】 대백【3푼】 대릉【8푼】 신문【3푼】

(34) 胸痛【むねのいたみ】
中腕 巨闕【八分】 章門【六分】 但シ吐法ヲ以テ痰ヲ
吐スヘシ。
홍통
중완 거궐【8푼】 장문【6푼】 단 토법을 써서 담을 토
해내야 한다.

(35) 飜胃【食物をはくやまひ】
下腕【八分】 足三里【五分】 胃兪【三分】 膈兪【三分】
번위【음식을 토해내는 병】
하완【8푼】 족삼리【5푼】 위수【3푼】 격수【3푼】

(36) 腹脹硬或小腹堅【ふかみがたく、おしてはらは
りたる人】
中腕【八分】 三陰交 大谿【三分】 脾兪【三分】
배가 딱딱히 불러오거나 아랫배가 딱딱해지는 경우
중완【八分】 삼음교 태계【3푼】 비수【3푼】

(37) 背痛【せのいたみ】
委中【五分】 羨【承】山【七分】 崑論【崑】【三分五分】
등이 아픈 경우
위중【5푼】 승산【7푼】 곤륜【3푼~5푼】

(38) 肩痛【かたのいたみ】
肩髃【手ヲアケテクホム所】 曲池【各一寸】 合谷【三
分五分】
어깨가 아픈 경우
견우【손을 들었을 때 우묵한 곳】 곡지【각 1치】 합곡
【3푼~5푼】

(39) 臂痛【ひじのいたみ】
肩髃【一寸】 手ノ三里【五分】
팔꿈치가 아픈 경우
견우【1치】 수삼리【5푼】

(40) 腕痛【うでのいたみ】
陽池【手ノ甲ノ横文ノクボミ、三分】 腕骨【手ノ外
クロフシノ骨ノキワ、三分】 手ノ三里【五分】
팔이 아픈 경우
양지【팔목 부위 횡문의 우묵한 곳. 3푼】 완골【손목
뼈의 가장자리 부분. 3푼】 수삼리【5푼】

(41) 頸項攣痛【くびすじひきつりいたみ】
風池【三分】 風府【三分】
목과 뒷목이 땅기고 아픈 경우
풍지【3푼】 풍부【3푼】

(42) 痢病【赤なめ、白なめ、しぶりはら】
中腕【八分】 天樞【五分】 關元【一寸】 又以燒鹽填臍
中灸一二百壯。
이병【赤痢, 白痢, 뱃속이 무지근한 경우】
중완【8푼】 천추【5푼】 관원【1치】 또 구운 소금을 배
꼽에 채우고 100~200장 뜸을 뜬다.

(43) 又極效ノ方
中腕【一寸】 天樞【一寸五分】 腰眼【五分】 痞根【一寸
二分】
효험이 몹시 좋은 또 다른 처방
중완【1치】 천추【1치 5푼】 요안【5푼】 비근【1치 2푼】

(44) 泄瀉
石門【五分】 四滿【四分】 中腕【八分】 天樞【五分】
설사
석문【5푼】 사만【4푼】 중완【8푼】 천추【5푼】

(45) 裏急後重【しぶりはら。いきみでも通ぜぬ人】
氣海【八分、臍下一寸五分ノ所】 關元【臍下三寸ノ
所、一寸】
뱃속이 땅기고 뒤가 무지근한 경우【뱃속이 무지근
한 경우. 배에 힘을 주어도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46) 嘔逆【からえづき】
內關【五分】 關元【一寸】
구역질
내관【5푼】 관원【1치】

灸胃俞十二三里
위수에 뜬다.

(47) 頭痛【ずつう】

百會 通天【二分】 印堂【三分。針ヲ下エフセテ刺ヘシ】 風池【三分】 風府【三分】 足ノ三里【五分】
두통
백회 통천【2푼】 인당【3푼. 침끝을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자침해야 한다】 풍지【3푼】 풍부【3푼】 족삼리【5푼】

(48) 腰痛【こしのいたみ】

委中【五分】 膀胱俞【三分。背十九椎開二寸】
요통
위중【5푼】 방광수【3푼. 제 19추에서 2치 떨어져 있다】

(49) 咳嗽【せき、しわぶき】

灸肺俞三 肝俞九
前谷【一分】 曲澤【三分】 膏肓【五分】
해수
폐수에 3장, 간수에 9장 뜬다.
전곡【1푼】 곡택【3푼】 황고【5푼】

(50) 咳血【せきに血のまじる人】

風門【三分】 尺澤【三分】 足ノ三里【五分】
해혈【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풍문【3푼】 척택【3푼】 족삼리【5푼】

(51) 吐血【血をはく人】

神門【三分】 中腕【一寸】 關元【一寸三分】 三里【五分】
피를 토하는 경우
신문【3푼】 중완【1치】 관원【1치 3푼】 삼리【5푼】

(52) 衄血【はな血いづる人】

瘰癧門【四分】 尺澤【三分】 足三里【五分】 合谷【三分五分】
코피
아문【4푼】 척택【3푼】 족삼리【5푼】 합곡【3푼~5푼】

(53) 下血【血のくだる人】

石門【五分】 天樞【八分】 百會【二分】 委中【五分】 三陰交 隱白【三分】

하혈

석문【5푼】 천추【8푼】 백회【2푼】 위중【5푼】 삼음교 은백【3푼】

(54) 口舌生瘡【口中またしたにかさいづる人】

勞宮【二分】 合谷【三五分】 甚則血ヲ取テ甚妙ナリ。
입속과 혀에 창(瘡)이 생기는 경우
노궁【2푼】 합곡【3~5푼】 심한 경우에는 피를 뽑으면 매우 좋다.

(55) 黃疸【おうだん】

中腕【八分】 梁門【一寸】
황달
중완【8푼】 양문【1치】

(56) 腰痛【せんきのこしのいたみ】

委中【五分】 膀胱【三分】 又八窮ノ穴ヲ灸スヘシ。
산증(疝症)에 의한 요통
위중【5푼】 방광【3푼】 또 팔교혈에 뜬다.

(57) 瘧疾【ぎゃく、おこり、舊わらわやみと云】

章門【六分】 京門【一寸】 若シ二日ニ一發ノ人ニハ加後谿【一分】 申脉【三分】 三里【五分】也。

학질

장문【6푼】 경문【1치】 만약 2일에 1번 발발하는 경우에는 후계【1푼】 신맥【3푼】 삼리【5푼】을 더해준다.

(58) 截瘧【おこりをきるに刺すべき妙術】

隱白【一分】 少商【一分】 章門【七分】 大椎【正中、五分】 各各平且ニ刺スベシ。
학질을 끊는 법【학질이 발발했을 때 자침할만한 묘술이다】

은백【1푼】 소상【1푼】 장문【7푼】 대추【한가운데, 5푼】 각각 동 트기 전에 자침해야 한다.

(59) 眩暈【めまひ】

上星 風池 天柱【三分】 足三里【五分】
현훈【어지럼증】
상성 풍지 천주【3푼】 족삼리【5푼】

(60) 淋病【りんひやう】

膀胱【三分】 關元【一寸】 腎俞【三分】 小腸俞【三分】
임병
방광【3푼】 관원【1치】 신수【3푼】 소장수【3푼】

(61) 遺精【路せつする人】

유정
十四椎背骨ヲ去ルコト三行通りヲ灸スルコトニ二七壯或三七壯。
제 14추 배골과 그곳에서 떨어진 양옆이 가로로 1열이 되도록 한 뒤, 이 3곳에 14장 혹은 21장 뜸을 뜬다.

(62) 脚氣【かっけ】

風池【三分】 風市 陰市【四分】 三里【五分】 絶骨 陽陵
【各六分】
각기
풍지【3푼】 풍시 음시【4푼】 삼리【5푼】 절골 양릉
【각 6푼】

(63) 水腫【しゅき、はれやまひ】



同身寸二寸二分ツツ臍ヲ去テ四穴ナリ。可刺、或灸スヘシ。又灸鬲俞 肝俞 脾俞 關元【一寸】 三陰交【三分】 但シ腫ノ多少ニ依テ刺ニ淺深アリ。
수종【종기, 붓는 병】
배꼽 옆의 4혈
배꼽으로부터 동신촌으로 2치 2푼씩 떨어져 있는 4혈이다. 이곳에 침을 놓아도 좋고 뜸을 떠도 좋다. 또 격수 비수 관원【1치】 삼음교【3푼】 침을 놓는다. 다만 종기의 다소에 따라 자침의 깊이에 차이를 둔다.

(64) 水腫遍身滿者【水しゅ總身はれたる】

天樞【五分】 梁門【一寸】 關元【一寸五分】
수종(水腫)이 온몸에 가득한 경우
천추【5푼】 양문【1치】 관원【1치 5푼】

(65) 眼目【めのやまひ】 灸肝俞 脾俞 三里

凡眼或ハ腫テ目包赤ク痛、亦赤肉眼中ニ出テ目ヤニ多爛ル等ノ症ハ血ヲトリ、ハリシテヨシ。其外、血ヲ取ルコトナカレ。

눈병 간수 비수 삼리에 뜸을 뜬다.

무릇 눈 혹은 부어서 눈꺼풀【目+包】이 부어서 아픈 경우, 그리고 적육(赤肉)이 눈 속에 나서 눈꼽이 많이 짓무르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피를 뽑고 침을 놓으면 좋다. 이외의 증상에는 피를 뽑아서는 안 된다.

(66) 眼中血多痛或爛眩者【目の内血の多き人又ただれ目】

百會 瞳子窞【二分】 上星【四分。後ヘフセテ】 臨泣【二分】 合谷【三五分】
눈 속에 피가 많이 몰려서 아프거나 짓무르고 어지러운 경우
백회 동자교【2푼】 상성【4푼, 뒤쪽을 향하게 하여 자침한다.】 임읍【2푼】 합곡【3~5푼】

(67) 陰丸腫·便毒·下疳·玉莖腫【よこね、かんそう、くきのはれたる人】

橫骨【一寸。臍下四寸ノ傍相去コト一寸五分ツツノ處】
음환종·변독·하감·음경종
황골【1치, 배꼽에서 4치 떨어진 곳에서 양옆으로 각각 1치 5푼 떨어진 곳에 있다】

(68) 面瘡【かおの内のでもの】

勞宮【二分】 或少血ヲトルヘシ。
면창
노궁【2푼】 혹은 피를 약간 뽑아낸다.

(69) 溺死【水におぼれたる人】

先醋ヲ口中エ入テ置、鳩尾深ク刺テ水ヲ吐サスレハ生ルナリ。常ニハ鳩尾ヲ深刺コトナカレ。鍼ヲトテスヘシ。

익사

우선 식초를 입속에 부어넣고 구미를 깊게 자침하여 물을 토해내게 하면 살아난다. 평소 때에는 구미를 깊게 자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침은 뉘어서 놓아야 한다.

(70) 難産【なんざん甚妙なり。必ずすくうべし】

關元【臍下三寸】



如此深二寸或三寸、人ノ肥ヤセニヨリテ可刺。必
ウムナリ。

난산【난산에 신묘한 효험이 있다. 이 치법을 쓰면
만드시 사람을 구하게 된다.】

관원【배꼽에서 아래쪽으로 3치 떨어진 곳】

관원을 중심으로 그림과 같이 자리를 잡아서 2치 혹
은 3치의 깊이로 자침하되, 환자가 살 켜는가 마른가
에 따라 침의 깊이를 정한다. 이 치법을 쓰면 만드시
아이를 낳는다.

(71) 又方【是を陽龍の傳という。人をすくう事たび
たびなり、必ずすくうべし】

十四椎開【二行通り】二穴 十五椎開【同】二穴、可刺、
妙也。

난산을 치료하는 또 다른 처방【이것을 양룡전(陽龍
傳)이라고 한다.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
만드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4추에서 횡으로 나란한 양옆의 2혈과 제 15추에
서 횡으로 나란한 양옆의 2혈에 침을 놓는다. 신묘하다.

(72) 阿蘭陀人口授秘藥【甚妙劑なり、まことに日本
の寶とおもふなり】

サフラン【五分細末】肉桂【一錢】右二味細末、別ニ
白ユリノ花ヲ二匁、如常煎シテカスヲ去、右ノ細末
ヲカキ立、茶碗八分目用ヘシ。即時ニウムナリ。

治例

死胎ヲ下シ、難産ヲ下シ、胞衣ヲ下ス。

네덜란드인에게서 전해진 묘약【신묘한 약이다. 진정
일본의 보배로 여길 만하다.】

사프란【5푼. 곱게 가루 낸 것】 육계【1돈】 이상의 2
가지 약재를 곱게 가루 낸다. 따로 백합의 꽃 2돈을 준
비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달인 뒤 찌꺼기를 제거한
뒤 앞의 2가지 약재 가루를 넣고 팔팔 끓여서 찻잔으
로 8할을 담아서 먹인다. 그러면 바로 아이를 낳게 된다.

치험례

사태를 나오게 하고, 난산을 해결하고, 포의를 나오
게 한다.

(73) 産後血量氣附【さんこのむりしたる時】

湧泉【五分】 中衝【二分】 勞宮【二分三分】

산후의 혈훈에 정신을 들게 하는 방법【산후에 무리
를 한 경우】

용천【5푼】 중충【2푼】 노궁【2푼~3푼】

(74) 又方血量及因瘀血狂氣者【おけつの症、氣のち
がう人】

合谷【四分】 三里【五分】 百會【二分。後エトテ】 三
陰交【三分】

또 다른 처방. 혈훈이나 어혈로 인해 미친 경우
합곡【4푼】 삼리【5푼】 백회【2푼. 뒤쪽을 향하게 하
여 누어서 놓는다.】 삼음교【3푼】

(75) 産後惡露不下胸腹痛妨悶者【おけつよく下りか
ねて、むねはらいたむ人】

關元【一寸或一寸五分】 三陰交【三分】

산후에 오로가 나오지 않아 가슴과 배가 아프고 막
히고 답답한 경우

관원【1치 혹은 1치 5푼】 삼음교【3푼】

(76) 臍下結塊如伏杯者【へその下のかたまり、手に
あたる事こぶし入るごとし】

間使【五分。或灸】 大谿【灸三壯。ハリ三分】 三陰交
【三分。灸三壯】

배꼽 아래에 그릇을 얹어놓은 것처럼 덩어리가 진
경우【배꼽 아래에 덩어리가 지되 손으로 만져보면 주
먹을 넣은 것 같은 경우】

간사【5푼. 혹은 뜸을 뜬다.】 태계【3장. 뜸을 뜬다.
침을 쓸 때는 3푼.】 삼음교【3푼. 뜸을 쓸 때는 3장 뜬다.】

(77) 婦人腰痛甚小便澀者【女こしいたみて小べんし
ぶる人】

胞背【背十九椎開三寸ノ處。鍼五分】 或灸五十壯

부인이 심한 요통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포황【제 19추에서 양옆으로 3치 떨어진 곳. 5푼으
로 침을 놓는다.】 혹은 50장 뜸을 뜬다.

(78) 經閉作塊者【月やくとどこおりてかたまりにな
る人】

關元【一寸。若久不愈者、灸三十壯、一ケ年三度】
월경이 막혀 덩어리가 진 경우
관원【1치. 오랫동안 낫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3차례 30장씩 뜬을 뜬다.】

(79) 霍亂嘔吐者【かくらん、はくことしげく、からえづきある人】
支溝【五分】
곽란구토【곽란으로 심하게 토하며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
지구【5푼】

(80) 霍亂吐瀉者【かくらん、はきたり、下したりする人】
支溝【五分】 尺澤【三分】 三里【五分】 大白【三分】
곽란토사【곽란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지구【5푼】 척택【3푼】 삼리【5푼】 태백【5푼】

(81) 乾霍亂無吐瀉而唯悶絕者【かくらん、吐も瀉もなく、もんぜつする人】
委中【五分。刺テ早ク血ヲ出スヘシ】
加鍼 臍上痛者加三里【五分】 臍下ハ加陰陵泉【五分】 俠臍痛者加上廉【三分】 引腰痛ハ加大白【三分】 心腹脹滿ハ加内庭 絶骨【各三分】 轉筋【筋】ニハ加至陰【一分】
건곽란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하지는 않지만 답답하여 기절하는 경우
위중【5푼. 자침하여 빨리 피를 내어야 한다.】
가침법. 배꼽 위쪽이 아픈 경우에는 삼리【5푼】에 가침하고, 배꼽 아래가 아픈 경우에는 음릉천【5푼】에 가침하고, 배꼽을 둘러싸고 아픈 경우에는 상림【3푼】에 가침하고, 허리가 땅기면서 아픈 경우에는 태백【3푼】에 가침하고, 명치와 배가 창만한 경우에는 내정 절골【각 3푼】에 가침하고, 근이 뒤틀리는 경우에는 지음【1푼】에 가침한다.

(82) 霍亂以取吐爲先【かくらんは、はやく吐きてよき事】
湯ト水ト等分ニシテ温キ鹽湯ニシテ、腕モ三ワンモ用吐シテヨシ。是上策ナリ。其後症ニ随テ可藥治也。

곽란에는 토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낫다
끓인 물과 찬 물을 같은 양으로 해서 따뜻한 소금물을 만들어서 찻잔으로 3잔을 먹여 토하게 하면 좋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약으로 다스려야 한다.

(83) 陰煩者一曰離魂病【何となくもだえて死せんとする人】
大椎【正中。五分ハリサキ上ヘ向ケテ】
음번【陰煩】은 이혼병【離魂病】이라고도 한다【이유없이 갑갑하여 죽을 것만 같은 경우】
대추【한가운데. 5푼 깊이로 침끝이 위쪽을 향하게 하여 놓는다.】

(84) 縊死者【くびをくくりて死する人】
先ソロソロト抱キヲロシテ介抱、人三四人ニテ抱テ、能床ニ臥サセテ後、陽陵泉ヲ刺【瀉法】、其次ニ間使 陽池ヲ刺。

목매달아 죽은 경우
우선 조심해서 그 사람을 껴안아서 내리고 부축한 다음, 3~4인이 안고서 침상에 잘 눕힌다. 다음으로 양릉천을 자침【사법】하고, 그 다음으로 간사 양지를 자침한다.

(85) 盜汗【ねあせいづる人】
腰ヨリ上汗アル者ハ陰都 間使。腰ヨリ下汗アル者 關元 天樞【各一寸】。

도한【자면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
허리보다 위쪽에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음도 간사에 자침한다. 허리보다 아래쪽에 땀이 나는 경우에는 관원 천추【각 1치】에 자침한다.

(86) 筋急【あしの筋引つる人】
陽陵泉【六分】 三陰交【三分】 公孫【五分】 崑崙【三分】
膝下痛 公孫【三分】 崑崙【三分】
膝上痛 陽陵泉【六分】 三陰交【四分】
근급【다리의 근이 땅기는 경우】
양릉천【6푼】 삼음교【3푼】 공손【5푼】 곤륜【3푼】
무릎 아래가 아픈 경우. 공손【3푼】 곤륜【3푼】
무릎 위가 아픈 경우. 양릉천【6푼】 삼음교【4푼】

(87) 諸病欲取吐則可刺事【諸病吐せたくおもふ時】
中腕【一寸】 大祖【ハリ先上エ向テ三分】 陽谷【一分】
若不效則三里【足】 鳩尾
온갖 병에 토하려고 할 때의 자침
중완【1치】 대조【침끝을 위쪽을 향하게 하고 3푼을
자침한다.】 양곡【1푼】

만약 효험이 없다면 족삼리 구미에 자침한다.

(88) 嘔吐【からえづき、或は物をはく人】
鳩尾【針ヲ下へフセテ】 關元【一寸】 三里【五分】
不效ハ下腕 胃兪ヲ刺ヘシ。又不效ハ中腕ヲ刺ナリ。
구토【헛구역질 혹은 무언가를 토하는 경우】
구미【침끝을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자침한다】 관원
【1치】 삼리【5푼】

효험이 없는 경우에는 하완 위수에 자침한다. 이렇게 하여도 효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완을 자침한다.

(89) 痰厥欲絶、痰胸膈塞昏迷者【なんのはりて死なんとする人】
中府【五六分。甚者一寸半】 但シ能其兪ヲ揉テヨシ。禁穴ノ故也。

담결로 쓰러지려고 하거나 흥격에 담이 막혀 정신이 혼미한 경우

중부【5~6푼.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1치 반.】 다만 그 수혈을 잘 찾아서 자침해야 한다. 금혈(禁穴)에 속하기 때문이다.

(90) 大便閉【大べんつまりて、又久しくせぬ人】
關元【二寸】 痞根【一寸二分】
대변폐【대변이 막히고 또 오랫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경우】
관원【2치】 비근【1치 2푼】

(91) 遺尿【ねしょうべん、またぎしきにてもらす人】
先診其腹、腹偏ニシテ不平モノナリ。其高方ノ天樞 梁門 陰都ヲ刺ヘシ。兩方トモニ平ナラハ中極ノ穴ヲ灸七壯。若不治モノハ復灸之。又氣海【八分】 大敦【三分】 灸針トモニヨシ。

유뇨【자면서 소변이 나오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변이 세는 경우】

우선 환자의 배를 진단하면 배 한쪽이 평안하지 않다. 배 중에서 높이 올라온 쪽 천추 양문 음도를 자침한다. 배의 양쪽 모두가 평안하지 않다면 중극혈에 7장 뜸을 뜬다. 만약 낮지 않는다면 다시 그곳에 뜸을 뜨고, 또 기해【8푼】 대둔【3푼】에 뜸을 뜨거나 침을 놓는다.

(92) 早瘡【はやくさとて大せつの症なり】

手足或頭面・胸背ニ發シテ煩悶シ、腹張、其熱火ノ如ク、痛不可忍。毒氣入裏則小腹・陰丸脹、又黑色面上ニ生スル者ハ死。早ク横ニ切サキテ血ヲトルヘシ。

조창

손발이나 머리와 얼굴, 가슴과 등에 나서 갑갑하고 배가 창만해지며 불처럼 열이 나며 아파서 참을 수 없다. 독기가 속으로 들어가면 아랫배와 고환이 창만해지고 또 얼굴에 붉은 색이 나는 경우에는 죽게 된다. 급히 옆으로 절개하여 피를 내어야 한다.

(93) 子癩【母のはらの内にて子が狂ふて氣を失ふなり】
巨闕【六分】 合谷【補法。四分】 三陰交【瀉法。四分】
자간【엄마 뱃속의 태아가 미쳐서 정신을 잃는 것】
거궤【6푼】 함곡【보법으로 4푼】 삼음교【사법으로 4푼】

(94) 陰臭【女のまえのくさきはたびたびさしてよし】
大敦【三分】 大陵【八分】 中衝【二分】 行間【三分】
陰臭【여자 음부의 역한 냄새에는 자주 침을 놓으면 좋다】

대둔【3푼】 대릉【8푼】 중충【2푼】 행간【3푼】

(95) 内下疝、莖中痛【ウミ出ルなり。りんびやうとはちがふなり】

石門【五分】 關元【一寸】 氣海【八分】 曲骨【六分】 大敦【二分。血ヲ出ス】 僕參【灸三壯】

음부의 하감창 및 음경의 통증【뜸이 생긴 것이다. 임병(淋病)과는 다른 것이다.】

석문【5푼】 관원【1치】 기해【8푼】 곡골【6푼】 대둔【2푼. 피를 뽑는다.】 복삼【뜸을 3장 뜬다】

(96) 癩病【さんびやう、かつたいともいう】

人中【二三分】 肩井【四分】 尺澤【各三陵針ヲ以テ血ヲトル。三分】

又加委中、或面部手足トモニフシダチタル所ハ皆刺テ血ヲトルナリ。

나병

인중【2~3푼】 견정【4푼】 척택【3푼. 각각 삼릉침으로 피를 뽑는다.】

(97) 積聚腹張如石、坐臥不安、二便澁上氣遍身腫【しゃくじゅうにありて石のごとく、小便つうせず、總身はれる人】

復溜【三分】 三里【五分】 陰陵泉【五分】 上脘【八分】 兼【承】滿【三分】

적취로 복부가 돌처럼 딱딱하게 창만하여 앉거나 눕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대소변이 막혀 상기되고 온몸이 붓는 경우

부류【3푼】 삼리【5푼】 음릉천【5푼】 상완【8푼】 승만【3푼】

(98) 中寒身無熱、吐瀉腹痛、厥冷如過肘者【寒毒にあたりてひえあがりて吐瀉し、はらいたむ人】

咽不渴 陰交 氣海【各灸スヘシ】 引衣以身可溫之。

중한(中寒)으로 몸에 열은 없으나 토하고 설사하며 배가 아프고 궤랭(厥冷)으로 싸늘함이 팔을 지나는 듯한 경우

목이 마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교 기해에 뜸을 뜨고 옷을 당겨서 덮어 따뜻하게 해준다.

(99) 中暑口渴或吐瀉【暑氣にあたりて口かわき、はきくだしする人】

內關【五分】 三里【五分】 大白【三分】 魚際【一分】

더위를 먹어 갈증이 나거나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내관【5푼】 삼리【5푼】 태백【3푼】 어제【1푼】

(100) 中暑卒倒、角弓反張、手足搐搦【しよにあたりてそりかえりたる人】

風池【三分】 百會【二分】 長強【廿一推下也。三分】 崑崙【三分】 三里【五分】

더위를 먹어 졸도하고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며 손발에 경련이 이는 경우

풍지【3푼】 백회【2푼】 장강【제 21추 아래에 있다. 3푼.】 곤륜【3푼】 삼리【5푼】

(101) 崩血【小に血がくだりて死んとする人】

大衝【三分】 氣海【八分】 三陰交【四分】 中極【六分】 大敦【二分】

붕혈【조금씩 피가 하혈되어 죽을 것 같은 경우】

태충【3푼】 기해【8푼】 삼음교【4푼】 중극【6푼】 대둔【2푼】

(102) 瘀血心腹痛不可忍者【ふる血にてむねはらいたむ人】

委中【血ヲ取】 阿是【但正中ヲ不刺、塊ノ際ヲ可刺】

어혈로 가슴과 배가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경우

위중【피를 뽑는다】 아시혈【다만 한가운데를 찔러서는 안 되고 덩어리의 가장자리를 찔러야 한다】

(103) 小兒舌瘡【子どものしたにかさ出る時】

手小指ノ表爪ノキワヨリ血ヲトルヘシ。

소아설창【어린 아이의 혀에 창(瘡)이 난 경우】

새끼손가락의 손톱 끝 가장자리에서 피를 뽑아낸다.

(104) 小兒夜啼【小兒のよなきに】

中關【二分三分。其兒ノ小大ヲハカリテ刺ヘシ。又灸スヘシ】

소아야제【어린 아이가 자다가 우는 경우】

중관【2~3푼. 그 아이의 몸집을 헤아려 자침해야 한다. 또 뜸을 뜬다.】

(105) 急驚風【きゅうきょう風、目を引きつけたるに】

中脘【八分】 印堂【二分。仆テ】 幽門【一寸】 章門【六分】

급경풍【눈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중완【8푼】 인당【2푼. 침끝을 뉘어서 놓는다.】 유문【1치】 장문【六分】

(106) 死胎必脈沈而小腹冷也【なんさん、死胎をくだすに】

合谷【三分】 三陰交【五分】 足ノ小ユヒノトカリ灸ハリトモニヨシ。

사태(死胎)가 있을 경우에는 맥이 반드시 침하고 아랫배가 차갑다.

합곡【3푼】 삼음교【5푼】 새끼발가락의 끝부분에 뜸을 떠도 좋고 침을 놓아도 좋다.

(107) 乳腫痛【ちちのはれたる人】
臨泣【二分】 三里【五分】 神門【三分】 三陰交【四分】
젖이 붓고 아픈 경우
임읍【2푼】 삼리【5푼】 신문【3푼】 삼음교【4푼】

(108) 吐乳不止【小兒ちちをはく時】
中脘【五六分】
어린 아이가 젖을 계속해서 토하는 경우
중완【5~6푼】

(109) 中濕腰背拘急、脚重疼痛【しつにあたりてこ
し・せなか・あし引きつりいたむ】
風池【三分】 中脘【八分】 絶骨【六分】 風市【四分】
중습(中濕)으로 허리와 등이 땅기고 다리가 붓고 아
픈 경우
풍지【3푼】 중완【8푼】 절골【6푼】 풍시【4푼】

(110) 注夏病【なつの時びょうもち】
春末夏初、頭眩眼花、腿酸脚軟、五心煩熱、口苦
口乾、無力好眠、食少、胸膈不利。
膏肓【三分】 肺俞【三分】 患門【三分】
주하병【여름에 생기는 병이다】
늦봄이나 초여름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에 꽃 같은
것이 보이며 다리가 시리고 약해지며 오심번열이 있고
입이 쓰면서 마르며 힘이 없어 졸며 식욕이 없어지고
가슴이 시원하지 않는 경우.
고황【3푼】 폐수【3푼】 환문【3푼】

(111) 咽喉塞、三日水穀不通【こうひ二三日薬水と
もに通らぬ人】
鬼當【一分】 少商 各血ヲトル。
인후가 막혀 3일 동안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후비(喉痺)로 2~3일 동안 약이나 물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귀당【1푼】 소상 각각에서 피를 뽑는다.

(112) 赤白帶下妙灸【しら血・長血の妙灸】
患人ヲ竹馬ニ乗セ、督脈ヲ上ルコト五寸ノ所ニ一
點、又其開一寸五分ニ



如是取テ、亦其下ニ

如此ニ取り、都六穴ナリ。體虛之人ハ七壯ツツ、
體實之人ハ十一壯或ハ十四壯。
적대하와 백대하에 좋은 뜸법
환자를 죽마에 태우고 독맥 시작점으로부터 5치 되
는 곳에 점 하나를 찍고 또 그 양옆으로 1치 5푼 떨어
진 곳에 그림과 같이 점을 찍는다. 또 그 아래에 그림
과 같이 점을 찍으니, 이렇게 하면 모두 6혈이 된다.
몸이 허한 사람은 7장씩 뜸을 뜨고, 몸이 실한 사람은
11장이나 14장씩 뜸을 뜬다.

(113) 痢病・脱肛・五痔・下血【しぶりはら・でぢ・
すべてのぢ・はしりぢ】
十二推ノ下灸。甚妙ナリ。
이병·탈항·오치·하혈
제 12추 아래에 뜸을 뜬다. 매우 신묘하다.

(114) 瘡腫雁瘡諸瘡之事
何ノ處ニ發スルコトヲ問ハス、凡痒ミアル瘡腫ハ
皆ランセツタヲ以テ刺テ血ヲ出スコト三五度ニ及テ
治スルナリ。或ハ三稜鍼ヲ以テ血ヲトリテヨシ。尤
スネクサノルイハ瘡ノ中、或ハ回りヲ亂ニ淺ク刺テ
血ヲ出スニシクコトナシ。但シカユミ有ルノミニカ
キラズ痛ム瘡モ刺テヨシ。又打身ノ惡血ノヨリタル
所モサシテヨシ。又ウテノ痛ハ尺澤ヲ刺テ血ヲ出シ
テヨシ。或股其外脚部ノ痛ハ委中ヲ刺テ血ヲトルヘシ。

창중·안창·제창
어디에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가려운 창중은 모두 렌
릿(양날의 끝이 뾰족한 의료용 갈)으로 찔러서 3~5차
레 피를 뽑으면 낫는다. 혹은 삼릉침으로 피를 뽑아도
좋다. 특히 정강이에 나는 창(瘡)의 종류는 창이 가운
데 혹은 그 주위를 얇게 난자하여 피를 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다만 가려운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통증이 있는 창도 자침하는 것이 좋다. 또 타박상으로
악혈이 모인 곳도 자침하는 것이 좋다. 또 팔이 아픈
경우에는 척박을 자침하여 피를 뽑는 것이 좋다. 정강
이 혹은 그 이외 다리 부위가 아픈 경우에는 위중을
자침하여 피를 뽑아야 한다.